

## 교수자와 학습자 의견 비교를 통한 좋은 수업의 특성 분석

박금주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Classes: By Comprising Opinions between Lectures and Students

Geum-Ju Park  
Liberal Arts College,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 의견 비교를 통해 좋은 수업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의우수교원으로 선발된 교수자와 강의우수교원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좋은 수업에 대한 의견에서 학습자는 더 잘 배우고 학습하기 위해, 교수는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자와 학생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상호작용에서 교수는 학습 촉진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생은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이나 교수자 직접 면담과 같은 상호작용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에서는 교수가 피드백 자체에 중점을 둔 반면, 학습자는 피드백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에 있어서는 교수가 평가 기준과 방법에 중점을 두었고 학습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다.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에서 교수는 좋은 수업의 효과와 성과에 중점을 두었고 학습자는 교수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good classes by comparing the opinions of teachers and learn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ecturers deemed to be excellent.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students who had attended lectures by excellent lecturers. We performed a network comparison analysis on the results to deriv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s a result, the common opin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good class was the attitude of the students to learn better, and efforts made by the lecturers to teach bette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the lecturers and the students in so far as the lecturers focused on their role as learning facilitators in their interaction with students. However, the students focused on the methods of interaction, such as using online services or face-to-face meetings with instructors. In the feedback on the courses or classes, the lecturers focused on the feedback itself, while the students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feedback. In the analysis of evalua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lecturers focu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 and the learners focused on the feedback on the evaluation result. Overall, the lecturer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and delivery of good instruction, and the students focused on the role of the lecturers.

**Keywords** : Good Teaching, Good Class, Text Analysis, Network Analysis, Text Network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Geum-Ju Park(Dankook Univ.)

email: 12171176@dankook.ac.kr

Received October 20, 2021

Revised November 22,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 1. 서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평가의 강화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대학평가는 학습 및 교수 방법이 평가요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수자는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 학습자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략적으로 학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수업을 통해 교수자는 더 잘 가르치고자 교수법과 수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는 더 잘 배우고자 학습법과 학습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수업 장면에서 교수전략과 학습전략, 강의실 환경, 활용매체, 교육과정, 사회문화적 상황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1].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 행동주의의 영향으로 수업은 효과, 성취, 동기, 태도에 중점을 두면서[2] 수업은 교과내용 전달의 기능이 강조되었고 좋은 수업 역시 교과내용의 효과적 전달에 주목했다. 2000년대 이후 대학평가가 시작되고 각 대학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설립되면서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영성의 연구[3]에서는 교수자와 학생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교수 행동의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통적으로 교수 행동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수업내용의 전달 능력으로 나타났다. 오미자의 연구[4]에서는 교수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학생과 교수자 모두 교수자의 열정을 좋은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좋은 수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수자는 물리적 환경, 교수자 전문성, 상호작용, 수업체계성의 순으로 답했고 학생은 교수자 열정, 교수자 태도, 학생수준고려, 수업체계성의 순으로 답해 교수자는 좋은 수업의 요인에 강의실 환경을 포함시켰고 학생은 교수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정은이의 연구[5]에서 교수자는 학생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하였고 학습자는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생각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민혜리 외의 연구[6]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수업의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교수자의 전문성, 학습결과, 교수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 강의내용, 수업운영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소영과 권성연의 연구[7]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강의의 추천이유와 조건을 조사하였는데 좋은 강의는 지적 만족감을 주고, 교수자의 열정이 느껴지며 공부하게 만드는 강의였다.

최문기의 연구[8]에서는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의 좋은 수업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전공수업의 좋은 수업 요건은 전문성, 교수자의 열정, 재미와 감동, 상호작용이었고 교양수업은 재미와 감동, 효과적 수업 운영, 상호작용, 학생 눈높이 수업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3-5], 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6-8]는 설문조사를 통해 좋은 수업의 요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수업의 준비, 수업의 운영, 학생 지원 등 수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업과 관련된 각 영역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좋은 수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과 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는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강의우수교원과 강의우수교원의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수업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교수자와 학생의 관점 각각에서 바라본 좋은 수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강의만족도 제고와 함께 수업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A대학교의 BTA(Best Teaching Awards: 우수교원상) 수상 교원 중 인터뷰에 참여한 교원 12명과 인터뷰에 참여한 교원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의 평가결과와 교수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선정되는 강의우수교원은 강의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

를 낸 교원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상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원은 교양대학 소속 교원 2명, 예체능대학 소속 교원 3명,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원 5명,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원 2명이었다. 학생은 인문과학 4명, 사회과학, 4명, 자연과학 6명, 예체능 4명이 참여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professor)

instructor	department	years of career	gender (m/f)	instructor	department	years of career	gender (m/f)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	f	G	art and physical	15	m
B	science and engineering	11	f	H	science and engineering	8	m
C	science and engineering	3	m	I	art and physical	14	m
D	art and physical	3	m	J	social science	5	m
E	science and engineering	20	m	K	science and engineering	10	m
F	social science	5	f	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3	f

Table 2. Participants (student)

instructor	department	grade	gender (m/f)	instructor	department	grade	gender (m/f)
A	art and physical	1	m	J	science and engineering	3	m
B	art and physical	1	f	K	social science	2	f
C	science and engineering	4	m	L	social science	2	f
D	science and engineering	3	m	M	art and physical	1	f
E	science and engineering	1	m	N	art and physical	1	m
F	science and engineering	1	m	O	human science	3	m
G	social science	3	m	P	human science	2	f
H	social science	2	m	Q	human science	1	m
I	science and engineering	4	m	R	human science	1	m

## 2.2 연구도구

교원과 학생 대상 심층면접을 위한 공통 질문은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 수업을 위한 준비, 집중되는 수업, 집중되지 않는 수업, 선호하는 수업방식과 이유, 상호작용,

학생 요구사항 확인 및 반영, 진로문제, 평가방법,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원 3인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 질문 문항 초안에서는 수업 운영에 중점을 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상담 문항을 추가하여 교수자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교원과 학생이 일화를 중심으로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교원과 학생 대상 심층면접은 2020년 1월 5일 부터 1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원과 학생 심층면접 전 인터뷰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달하여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참여 서약서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렸다. 교원대상 심층면접은 1시간씩 2회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1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학생대상 심층면접은 40분에서 1시간까지 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전 심층면접 내용을 전사하고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생각 차이와 수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 도구인 KrKwic(Korean Key words in context)을 활용해 핵심단어 출현빈도와 핵심단어를 선정하였으며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수자와 학생 간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각각 핵심단어를 도출하고 하나의 표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핵심단어 출현빈도를 결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KrKwic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빈도 분석 도구이며 UCINET은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드(단어) 간 관계를 그래프 또는 수치로 분석이 가능한 도구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 차이를 비교하였다.

## 3. 연구결과

좋은 수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 작용, 학생 요구사항 반영, 평가의 공정성,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

좋은 수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공통적으로 전달, 적용, 학생, 이해, 쉽게, 소통, 수업이 도출되었고 학습자에서는 참여, 토론, 호응, 집중, 질문, 이론, 장점, 실습, 재미, 준비, 상호작용, 창의적, 눈높이, 사례, 교수님, 설명, 대화, 피드백, 교수자에서는 학습목표, 효과, 학습자, 흥미, 지식, 활용, 정확, 정보, 전문지식, 완벽, 동기부여가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수업 13회, 학생 5회, 전달 3회, 소통/지식/학습자/효과가 각 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수업 30회, 소통/교수님 각 8회, 학생 5회, 쉽게/이해 각 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정확한 전문 지식 및 정보 전달, 효과적인 수업, 학습동기부여, 학습목표 달성, 학습자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어려운 수업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과 대화, 교수자의 피드백을 원하고 수업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생 참여가 있는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는 수업을 원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수업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고 실무나 현장에 적용가능하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이 있는 강의를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는 수업보다는 제가 가르치는 과학이라는 교과는 지식을 전파하고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 교과다 보니까 1학년들은 주로 수업에 참여보다는 어떠한 본인들의 동기유발에 대한 것을 많이 자극을 주죠.” (교수자 B)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교수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계속 물어보고 질문할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교수님이 좋아요. 학생들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강의하는 교수님이요.” (학생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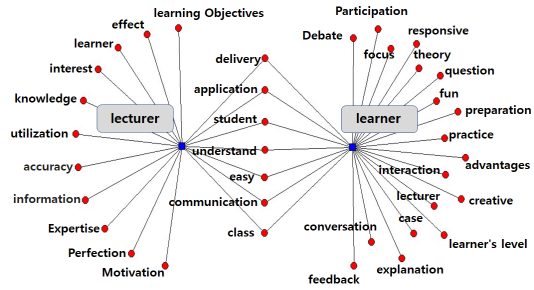


Fig. 1. Thoughts on a good class

### 3.2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공통적으로 수업, 교재, 내용, 복습, 피피티가 도출되었다. 교수자에게는 좋은 수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학습자에게는 수업 참여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습자에서는 이러닝, 자료, 출력, 영상, 과제, 교수님, 연습, 교수자에서는 보충자료, 학습자, 흥미, 활용, 학습, 지식, 학생, 설명, 답변, 코칭, 노력, 진행, 동영상, 교육요구조사, 눈높이, 공부, 이해, 반영, 독려, 난이도가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수업 28회, 학생 10회, 설명/활용 각 8회, 진행 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수업 13회, 연습 7회, 내용/복습 각 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학습자 분석을 위해 교육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 반영하였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학습자는 연습을 하면서 관련 영상을 검색해 보고 수업 자료를 출력해 수업을 준비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의 복습,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활용되는 피피티(PPT : Powerpoint) 파일 자료준비로 수업을 준비하였다. 다음은 좋은 수업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저는 일단 학부는 교양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듣는지 많이 검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들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애들이 좀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흥미를 좀 느낄 수 있는 지.” (교수자 G)

“저는 이제 뭐 강의하기 전에 미리 교수님이 수업하실 내용을 올려놓으시는 이러닝 센터에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이러닝 센터에 가서 어떤 하나 궁금하면은 그걸 훑어 보기도 하고 준비, 자료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학생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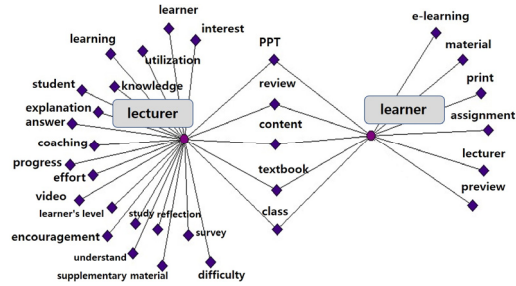


Fig. 2. Efforts to teach a good class

### 3.3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서는 학생(교수)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Fig. 3과 같이, 공통적으로 대화, 질문, 수업, 눈맞춤, 연구실, 상담, 면담, 개인적이 도출되었다. 학습자에서는 실습, 이러닝, 토론, 설문, 활용, 카훗, 이메일, 복습 상호작용, 방문, 문자, 교수님, SNS가 도출되었고 교수자에서는 학생, 친근하게 카톡, 코칭, 이메일, 흥미, 쉽게, 독려, 도움, 존중, 다정하게 이야기, 생각, 이해, 답변, 관심, 친절, 노력, 기억, 과제, 간식이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학생 45회, 수업 17회, 노력 13회, 질문 1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질문 10회, SNS 7회, 대화/교수님 각 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이메일, 카톡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친근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학습자를 대하려 노력한다.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며 힘든 점에 대해서는 도움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자 노력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와 SNS, 문자, 이메일, 이러닝 캠퍼스를 통해 소통하고 교수자의 연구실에 방문하기도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대화, 상담, 질문, 아이컨택, 면담이 상호작용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상호작용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티칭스타일의 강의가 아니고 코칭스타일, 코칭의 기본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조차도 안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아주 내가 힘들 어지죠.” (교수자 J)

“수업 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 요새는 SNS 발달해 있으니까 수업 때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 수업 외에도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 생활하다가 그럴 때 있으면 그 앞서 말했던 SNS 활용해서 교수님하고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을 연장해서 대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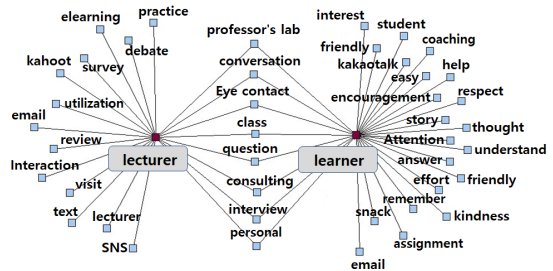


Fig. 3.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

### 3.4 학생 요구사항 반영

학생 요구사항 반영에서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Fig. 4와 같이, 공통적으로 질문, 학생, 중간강의평가, 수업, 반영, 반응, 대화가 도출되었다. 학습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요구사항, 이러닝, 피드백, 설명, 수렴, 배려, 답변이 도출되었고 교수자에서는 요구조사, 과제, 시험, 청취, 확인, 꼼꼼히, 앱, 성찰, 설문, 도움, 생각, 살핌, 공개, 건의 사항이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수업 16회, 학생 11회, 반영 7회, 반응 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수업 15회, 학생/반영 각 8회, 질문 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강의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 강의에 반영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과제나 시험, 발표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을 배려하여 요구사항을 강의에 반영하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공통으로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중간강의평가 결과를 기말고사 전까지 또는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한다. 다음은 학생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매 시간마다 한 두 가지씩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얼굴을 보면 생각나니까 일부러 막 메모까지는 안 해도 생각이

나니까. 아 맞다 재는 좀 어렵다고 얘기했었지. 조금 낮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얼굴을 보고 알아들었겠지? 뭐 이런 표정으로. 조금 수준이 낮은 예문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요구사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교수자 L)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이 교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터닝에 바로 그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써서 올라오고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이터닝에 올라오고 다음 수업 시간에 가면 수업 시간 전에 그거에 대한 설명, 학생들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학생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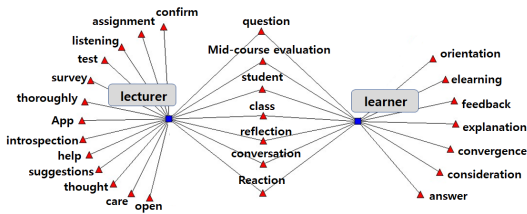


Fig. 4. Reflect student needs

### 3.5 평가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Fig. 5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험, 평가, 수업, 퀴즈, 성적, 문제, 단답형, 공정성이 도출되었다. 학습자에서는 조원평가, 풀이과정, 피드백, 점수, 공개, 설명, 산출과정, 서술형, 상세하게, 교수님, 배점, 개인정보가 도출되었고 교수자에서는 영어, 이의제기, 확인, 공개, 출석, 점수, 학생, 발표, 무임승차, 온라인, 기말고사, 답안지, 실기, 상담, 난이도, 중간고사, 녹화, 노력, 객관적, 공지, 수업, 엄격, 기여도, 수치화, 과제, 개별적이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평가 14회, 학생 10회, 시험 9회, 실기 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공정 17회, 시험 8회, 평가/수업/교수님/점수 각 5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과 기준을 학기 초에 공지한다. 조별활동에서 학생들의 활동 기여도를 살펴 평가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해 적용 비율을 달리하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학생들의 확인을 받는다. 실기평가는 사후 확인을 위해 녹화하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수치화해 학점을 부여한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평가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평가과정과 결

과의 공개, 문제풀이가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는 상세한 풀이과정, 각 문제의 배점에 대한 정보, 퀴즈와 단답형 활용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하였다. 교수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서술형 문제보다는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습자도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가 평가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저는 시험문제에 대한 문항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문제에 대한 문항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운이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파트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좀 주의 깊게 공부한 친구는 잘하지만, 그것만 빼고 또 다른 데를 공부한 친구한테는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문제에서 내는 어떤 시험의 영역은 제가 가르친 부분에 대한 웬만한 문제들은 다 낼 수 있는 좀 많은 문제의 유형을 일단은 내고 있고요.” (교수자 K)

“항상 시험끝나고 시험지랑 교수님 풀이를 직접보여 주시면서 여기서 어떻게 쓰는 사람은 몇점을 깎았고 이렇게 풀면 몇점을 깎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점수와 배점을 알려주시고요. 시험점수를 학번이랑 공개하신 적도 있어요. 시험지 확인하러 가도 다 보여주시고...” (학생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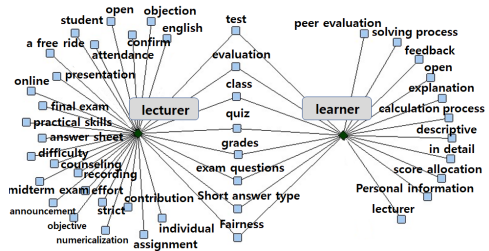


Fig. 5. Fairness of evaluation

### 3.6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에서는 과제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Fig. 6과 같이, 공통적으로 첨삭지도, 학생, 과제, 시험, 문제, 개별적, 설명, 난이도가 도출되었다. 학습자에서는 질문, 답변, 확인, 이터닝, 점수, 조별과제, 이해, 답안지, 수업, 연구실, 발표, 리뷰, 반영, 공개, 구체적, 교수님, 기말고사, 메일이 도출되었고 교수자에서는 프로젝트, 작품평

가, 피드백, 질의응답, 평가, 출제, 내용, 동료평가, 개념, 상세히, 발표가 도출되었다.

핵심단어 출현빈도는 교수자가 시험 15회, 피드백 12회, 학생 8회, 과제 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은 시험 16회, 과제 12회, 학생/문제/설명/답변/발표/점수 각 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발표, 과제, 작품, 시험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조별과제, 개별과제, 발표, 시험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자의 피드백은 해당 학습 산출물이나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학습 결과 피드백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저는 중간하고 기말에 꼭 크리틱(critic)을 해요. 뭐 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명씩 발표하게 해요. 좀 형식적인 한데 아직 굉장히 낯설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발표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제가 하나하나 그때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고 다 보고 있으니 그때 알려줄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수자 F)

"정말로 학생들이 과제내면 다 꼼꼼히 읽어보시는 교수님이셔서 그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있으면 오셔가지고 과제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았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다 말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학생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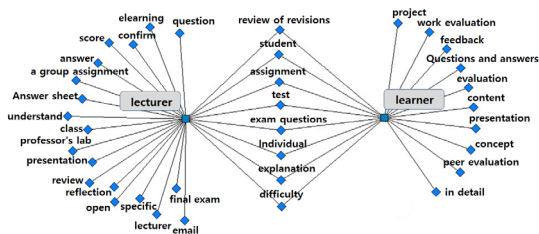


Fig. 6. Feedback on learning results

#### 4. 결론

좋은 수업에 대한 의견에서 학습자는 더 잘 배우고 학습하기 위해, 교수자는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에서 살펴보면, 교수자가 교육요구조사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수자는 이를 수업에 반영한다. 또한 학생의 질문과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해 교수자는 피드백을 제공한

다. 학습자는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교수자에게 전달하고 발표, 과제, 시험 등 학습활동결과물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는다.

교수자는 좋은 강의는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정확한 수업 내용을 전달하여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 반면, 학생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는 수업으로 의견이 수렴하였다. 좋은 강의를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업에 반영하고 난이도를 조절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한다. 학생은 관련 영상을 검색해서 예습하고 강의 자료를 인쇄한다. 교수자와 학생 간 상호작용에서 교수자는 학습 촉진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생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교수자의 연구실을 방문하는 것을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수자가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생은 상호작용의 방법과 수단에 중점을 두었다.

요구사항 반영에서는 교수자가 요구조사 결과 반영에 중점을 두었고 학생은 강의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과 질문에 대한 교수자의 답변까지 요구사항반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에서는 교수자가 학습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다면 학습자는 피드백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의 공정성에서는 교수자가 평가 기준 제시와 평가 방법에 집중하였다면 학습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생의 의견은 6가지 영역에서 수업에서의 역할과 수업 목표, 수업 성과 측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교수자는 좋은 수업의 효과와 성과에 중점을 두었고 학습자는 좋은 수업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수업 이해 정도, 학습활동의 결과에 집중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은 교수자의 수업 운영과정에서 상호작용, 피드백 등 교수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좋은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수업 성과와 수업 과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자의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의 교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고 10년 이하의 교원은 상호작용과 수업 준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교수자의 강의전달력에 중점을 두었고 신입생 외 재학생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에서 도출된 좋은 수업의 특성은 수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충분히 수업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이다. 교수자는 학습자, 학습자는 교수자 입장에서 수업에 대해 생각하고 배려할

때 좋은 수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References

- [1] J. H. Kim, J. M. Yang, J. A. You, Y. S. Kwak, J. S. Lee, D. H. Kang, S. H. Choe, W. Y. Choe, Y. A. Kim,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School Education(II):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Good Instruction in the Secondary Schoo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orean, pp.40-43.
- [2] M. J. Park,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n Essay-Review of College Students", *Humanities Research*, Vol.35, No.4, pp.229-253, Dec. 2008.
- [3] Y. S. Kwon, *An Analysis of Factors of Effective Lecturing Behaviors in University Class*,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6, 2006.
- [4] M. J. Oh, "Analysis of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Lecture Component Factors" at College and Educational Need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7, No.1, pp.1-22, Feb. 2019. DOI: <http://dx.doi.org/10.18230/tjye.2019.27.1.1>
- [5] E. I. Jung, "Perceptions by teachers and students of good teaching at college", *Education method research*, Vol.22, No.3, pp.25-44, Aug. 2010.
- [6] H. R. Min, B. M. Yu, M. J. Shim, "A study on the factors of best lecture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University Teaching", *Education Information Media Research*, Vol.11, No.3, Jun. 2005.
- [7] S. Y. Shin, S. Y. Kwon,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good teaching by their characteristic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0, pp.393-413, May.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0.393>
- [8] M. G. Choi, "Student's perception of 'Good instruction' of major and liberal arts subjec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0, No.3, pp.325-348, Sep. 2016.

박 금 주(Geum-Ju Park)

[중신회원]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관심분야>

교수학습과정개발, 직업진로교육과정개발, 평생교육